

David Emanuel 박사, 세션 3, 출애굽기 시편 105편

©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시편 105편,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인 시편 7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기억하고 순종하라'입니다. 소개. 출애굽 모티브는 이 특별한 시편에서 훨씬 더 긴 역사 선택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더 긴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8편이 거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중 대부분, 약 80~90%가 출애굽 모티브와 그 여러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 뒤에 있는 순서에 따라 잘게 자르고 바뀌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다지 많이 쪼개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은 기록된 전통과 비교적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편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기록된 전통, 즉 이스라엘의 전통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독자를 특정 텍스트로 다시 연결하기 위해 특정 어법과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적 암시의 훌륭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훌륭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시편이 연대기에서 재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의 처음 15절이 등장합니다. 축어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완전히 축어적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지만 연대기 작성자가 시편 기자의 자료를 차용했다는 점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편의 자료를 차용한 사람은 연대기 작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다루지는 않을 논의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게 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배경으로 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전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략 1절부터 6절까지 예배하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시편 전체의 주제나 줄거리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시편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우리는 그 약속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수호에 대한 이러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고, 요셉이 있고, 이집트의 이스라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막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위협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전의 역사적 자료에서 기록된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가 대단한 권력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분은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4장과 42장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앞서 말했듯이 시편의 중요한 위치는 바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요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큰 교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45절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가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가 베푸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 주님께 감사드리라”로 시작합니다. 지혜문학과는 반대로 찬양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감사의 개념은 찬양과 감사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 시대에, 특히 시편 기자의 경우, 우리가 감사에 대해 말할 때 단지 감사하다는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가 행한 일을 정확히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todah, hoda'a, todah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Today는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요. 이 단어는 실제로 고백하고 말하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사례에서 여리고를 정복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고 다 멸하라 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몰래 들어와서 옷 몇 벌과 은 한 덩이와 이런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적 작은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그랬는지 걸러내는 과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한의 가족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돌아서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토대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해주는군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행한 일을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감사하라, 네 입으로 말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 시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단순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낭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두로도 그것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분의 모든 기사를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niflahot, niflahot, gedulot라는 문구를 언급했는데,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의 문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가 행한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99%의 경우이고 정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억은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속에서 살고 죽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억은 마음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항상 실천적인 행동이 동반되도록 의도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어떤 것에 대한 향수 어린 추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당신이 지금과 같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적 기억의 개념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 창세기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회상되고 있는 약속인 두 번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명한 성경적 암시가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네 기업의 일부로 네게 주리라.

여기에는 매우 명확한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약속이며,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연결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러나 매우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보호를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시편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뿐입니다. 땅은 이 특별한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은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편이나 포로기 동안의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막 땅으로 돌아와서 땅에 대한 약속을 회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가스에 가서 거기에 베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실적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편의 문맥에서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이 위험에 처했거나 위험에 처했던 시간에 대해 말하는 짧은 이야기 또는 이야기 유형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을 그토록 훌륭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암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수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극소수였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의 역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단지, 족장들이 그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 문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기자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문헌을 알고 있다면 창세기 34장의 이 구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세겜에서 학살하라.

그 결과 야곱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이나 주변 도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 주민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 수는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멸망하리라. 이 표현은 이 서사적 맥락에서 이 두 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독자의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약속이 위협에 처한 일이었는데 만일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와서 그를 멸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효가 되리라. 백성이 죽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작은 문구를 통해 저자가 본문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고 창세기의 전체 문맥을 그의 시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요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 전체를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갈 수 있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그 특정한 이야기에 연결시켜 줄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당신은 나머지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나라로 방황합니다. 그들은 자기 때문에 왕들을 책망했습니다.

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저는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는 또 다른 강조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차점은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데, 이는 AB 다음에 B A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교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지지 않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있고 너희에게는 나의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것들은 거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기름부음받은 자들, 즉 자신의 백성을 막거나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성경적 암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얻었고 그것은 선지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족장들과 관련하여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개입하셔서 이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개입합니다. 그는 왕을 꾸짖었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로 블레셋 왕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이 사람은 선지자라 하더라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손을 뻗어 더 큰 본문을 잡고 그 의미를 가져오는 또 다른 훌륭한 성경적 암시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이었음에도 말이죠.

시편 17-22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도 기근으로 죽어서 약속도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속은 항상 배경에 걸쳐 있습니다.

실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이 없고 그들은 그를 팔려고 합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특정한 시기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며 모든 것이 경건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이 시편 전체를 통해 우리는 마치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인형극의 대가에게 올라가는 줄을 볼 수 있고 그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 전체에서 그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은 기근을 부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조정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 예를 봅니다.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와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의 렌즈가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이 형들,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겪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것을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 났고 그는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금속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속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만들고 계시네요.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기자가 이 특별한 시나리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문구는 왕이 그를 보내어 놓아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놓아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주장했듯이 이 글을 읽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살라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그것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살라크 멜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보낸 살라크 멜렉, 문자 그대로 이것이 그가 보내질 것이고 이것이 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제기하는 이유는 왕이 요셉을 보내어 석방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 또는 일반적인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시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이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셨고, 왕은 순종하여 요셉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시편을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시편 기자의 MO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점은 단순히 시편에 살라크라는 단어가 세 번 더 등장하고 하나님은 항상 동사의 주어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렌더링되는지에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있습니다. 몇 가지 리터럴 버전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영의 직역은 실제로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고 왕은 순종하는 것처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시편에서 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간격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의 변화를 더 많이 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백성을 심히 번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한 수단 없이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할은 높아지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집트라는 단어로 매우 영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inclusion) 또는 포함(inclusio)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의 시작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영리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시편 기자가 기본적으로 한 일은 그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라면 시편을 이렇게 도식화해 봅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집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가 특히 영리하게 행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 이집트라는 단어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유형의 동의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는 대명사, 그들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까지 다시는 이집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클루시오(inclusio) 또는 포함(inclus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텍스트를 나머지 자료와 분리하거나 분리하는 수단입니다.

이 경우 시편 기자가 애굽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의 땅. 그는 이 섹션 전체에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영리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타나고 이름이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78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재앙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남성 단수인 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에서 일종의 카메오 역할을 맡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앙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이것들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언급은 시편 105편과 78편에만 나옵니다. 오직 시편 105편과 78편에만 재앙이 완전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자와 일반적인 종류의 언급만 할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인들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특정 장소에서 전염병의 또 다른 완전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내겠지만, 여기서는 10가지 재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단지 7개만 얻습니다. 우리는 단지 7개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하여 어둠을 보내어 어둠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그가 하지 않은, 그들이 그의 말에 반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반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둠에 대한 언급이고 이 재앙들은 그분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도 약간의 이중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가장 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재앙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모두 겪으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더 강력한 사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분명히 마지막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를 죽이는 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보다 조금 더 가혹한 피해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에 대한 완전한 표현은 시편 105편과 시편 78편에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쿨란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4Q422에도 전염병이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전염병이 9개 정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기사가 작성되었지만 시편, 그 텍스트에 대한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궁 안에도 개구리입니다.

시편 78편의 개구리와는 달리 이들은 잡아먹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왕의 방에 들어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arov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로프란 무엇인가요? 앞서 시편 78편에서 아로브가 야생동물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어도 유대 문학에는 확실히 매우 강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로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논쟁을 위해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기와 결합된 것 같습니다.

자, 떼, 여기 파리 떼와 각다귀 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arov의 의미를 떼로 되돌리면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토에 떼와 각다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떼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갖고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영역에 더 구체적인 각다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떼가 반드시 파리를 의미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저는 떼를 구체적으로 파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재앙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진 또 다른 비파괴적인 재앙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렌 불은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는 전염병당 두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전통에서도 인정되는 할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꽤 좋습니다. 또한 여전히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메뚜기에 대해 언급하는 또 다른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뚜기와 메뚜기 떼가 무수히 와서 모든 채소를 먹고 그 땅의 열매를 먹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강렬함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에게도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과 여기 이 시편 모두에서 장자는 항상 궁극적인 재앙입니다. 이제 장자의 재앙은 궁극적인 재앙이지만 항상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모든 재앙이 어떻게든 만연해 있는 창조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구리들과 떼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을 수도 있는 현상들이다. 어둠의 역병, 음, 이것은 어떤 설명의 일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과학계 사람들이 말했듯이, 피의 재앙은 그 당시 강에 영향을 미쳤던 특정 유형의 조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뭐 메뚜기는 어차피 왔어, 우박, 어쨌든 왔어.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효과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면 강력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를 치느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선택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이것이 항상 마지막 위치에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이것이 모두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면 출애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셔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를 나갑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은과 금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가 기뻐고 여기에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앞서 언급한 포함은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곳입니다. 시편에서는 여기까지 족장들을 위협하는 왕들과 사람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가니 그 위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피조물에게 있음이라. 그것은 태양으로부터도 있고 굽주림이나 사막에서의 그런 것들로부터도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봅니다.

그분은 덮개로 구름을 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름이 덮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클라우드는 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동안 따라가는 구름 기둥입니다. 그것도 밤에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이드이지만 여기서도 덮개로서 구름의 다른 전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사야 4장 5절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주님께서 시온 산 전체와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와 밤에는 불꽃의 빛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장 5절의 맥락에서 이 구름은 낮 동안의 태양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여기에도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Ben Sira에서도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는 단순한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보호의 개념은 시편 105편의 맥락에서 더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을 모티브로 한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물에 대한 불평, 음식에 대한 불평, 모세에 대한 반역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 기사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즐거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적어도 이 특별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것은 건너뛴니다. 이것이 성경해석의 한 측면이다. 그는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낙천주의자가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이 섹션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편의 앞부분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이 거룩한 말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는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 곧 9절에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쁨으로 이끌어 내시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오셨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를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시므로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시편 78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과 비슷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패턴을 봅니다.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수하면 그게 끝입니다. 또한 이 교차점은 독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편의 끝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의 끝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일부 해석 노트. 어둠, 첫 번째 재앙부터 장자까지 점진적인 강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어둠에는 무해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고기를 죽이는 피를 갖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왕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로열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떼와 이가 있는데 이는 이중 공격일 수도 있고 그냥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다른 재앙으로 기록된 두 가지 재앙에 대해 그들이 언급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강도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박과 메뚜기에 대한 재앙당 두 구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당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주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약간 더 화를 내시고, 약간 더 화를 내시고, 약간 더 화를 내시는 점진적인 강도의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장자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 있는 모티프나 사상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심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직접적인 연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비추어 보면, 그가 말하는 심판 중 하나는 왕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또 한 말은, 그가 말하는 입의 판단이다.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시험합니다.

3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파리 떼가 나오더라. 다시 그는 말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매 메뚜기 떼도 오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 이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78편에서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정성이 없고 부정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왕들에게 두 번이나 말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이 그를 팔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것, 사막에서의 식량 불만, 가데스에서의 반역,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때의 큰 반역.

이 모든 일은 출애굽기 기록에서 발생하지만 시편 기자의 목표 때문에 그는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편에서 요약하자면,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했고,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다루는 역사는 출애굽뿐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다. 시편 78편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그곳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 본 것처럼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주는 일에 그칩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언급한 땅에 대한 개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이혼했거나 그 땅과 새로 재결합한 시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토라를 주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편의 끝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시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의 반역 전통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실 때 그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기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재앙을 제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시편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할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는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모든 사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조종하는 최고의 인형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5편의 끝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긴 시편인 시편 106편과는 매우 다르지만, 시편 기자가 이 작품에서 개별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강조점은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시편 105편,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